

노인학대에 대한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인식

김정석·심정은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Perceptions of Elder Abuse among the Elderly in Urban and Rural Areas

Kim, Cheong Seok · Sim, Jeong Eun

Dept. of Sociology,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As elder abus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it has drawn a great deal of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policy-planners. Whil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addressing various issues related to elder abuse,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ain whether and how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would differ among the elderly themselve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amily-centered culture is believed to have a stronger influence in rural areas compared to urban areas. This cultural tradit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compared to the individuals. Thus, the elderly who experience abuse would take it as personal matter rather than publicizing it. In addition, the information and campaigns on preventing elder abuse are less prevalent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due to limited communication networks. For these reasons, the study suggests a hypothesis that the elderly in rural areas are less perceptive to elder abuse. Using 6,709 persons aged 65 and over from a nationwid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09, the study ran regression analysis on 4 types of elder abuse including psychological, financial, physical and neglect. The results show that regardless of types of abuse, the elderly in rural areas have lower levels of perception than the elderly in urban areas do.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social activitie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elderly abuse. This is also true for the different types of elder abuse. Th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effort to prevent elder abuse consider the urban-rural differences and their sources.

Key words: elder abuse, perception of abuse, family centered culture, social activities

I. 들어가는 말

인구고령화와 산업화로 노인의 역할과 지위가 크게 약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중에서 자녀가 노부모를 홀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노인학대는 신문방송매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노인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권중돈 2004). 최근에는 노인학대의 범주에 정서적 무관심 등의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인식의 폭도 넓어져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행위를 노인학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이윤경·김미혜 2008).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노인학대로 인식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대의 대상이 되기 쉬운 노인들의 경우, 학대에 직면했을 때 이를 노인학대로 인식하는가 여부에 따라 대처행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노인들이 자녀에 의한 학대행위를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한 개인간 갈등으로 인식한다면, 노인들 스스로가 이를 사회적 개입이 요구되는 공적인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행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을 인식으로 전제한다면, 노인들의 학대행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주어진 행위 못지않게 그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은 실질적인 학대행위의 수준과 범위를 규정하는 축이 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그 결과를 치유하는 노력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성인연령층의 인식을 다룬 연구(김한곤 1998; 이인수·이용환 2000; Malley-Morrison et al. 2000)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봉길 2005; 윤현숙 등 2010; 이금자 2007; 이금자·이현지 2007)로 구분된다. 후자의 연구들은 학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학대 상황을 인식하며, 이들의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대체로 개별연구자들이 실시한 소규모사회조사로부터 획득된 것이기 때문에, 사례수와 자료의 대표성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는다.

본 연구는 노인들 사이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기존연구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인식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학대영역에 걸쳐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될 것인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과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고령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수준이나 사회서비스체계의 열악함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노인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농촌 노인들이 도시노인에 비해 노인학대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박옥임 2009; Dimah & Dimah 2003). 한편, 노인학대에 대한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인식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이러한 차이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발견된다. 가족중심적 문화가 강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비교적 제한되고, 사회서비스체계가 부족한 농촌의 특성으로 인해 이 곳 노인들의 인식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배진희·김근곤 2011; 이금자·이현지 2007; Moon & Benton 2000).

II. 선행연구고찰

노인학대 개념은 1970년대 영국에서 ‘할머니 구타(granny bashing)’라는 용어로 처음 소개된 이후, 나라마다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임병우 등 2009). 단순히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소극적, 협의적 개념으로부터 노인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

광의적 개념에 이르기까지 그 정의의 폭이 매우 넓다(권중돈 2004). 본 연구가 사용할 조사 자료를 생산한 정경희 등(2010)은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위해가 되거나 노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일회성 또는 반복적 행동’을 노인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학대발생장소, 학대행위영역, 학대행위 중복성 등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연구자마다 차이가 존재한다(이운경·김미혜 2008).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학대가 발생하는 영역에 따라 그 유형을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으로 분류한다(배진희·정미순 2007; 이금자·이현지 2007). 정서적 학대는 노인에게 참담함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지칭한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를 포함한다. 방임은 노인에게 대한 의무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행위를 말하며, 노인 스스로 자기보호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자기방임도 포함한다(정경희 등 2010).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그 개념정의나 유형 구분기준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인종이나 이민자집단들의 비교를 통해 각 집단의 문화에 따라 노인학대로 인식하는 행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들도 적지 않다(Lee & Eaton 2009; Malley-Morrison et al. 2000; Moon 2000). 국내에서는 문화적 차이보다는 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활동참여 등에 따른 학대 인식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대체로 성, 연령,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남성노인은 여성노인보다 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대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박봉길 2005). 연령이 낮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건강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금자·이현지 2007). 노인학대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주목한 연구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녀동거여부에 따른 노인들의 학대행위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여러 연구에서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한 노인일수록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보선 2005; 윤현숙 등 2010; 이금자·이현지 2007).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농촌노인과 도시노인간의 비교에 집중한 연구물은 제한적이다. 우선,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학대행위를 사회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낮음을 지적한 외국의 연구물들이 있다(Dimah & Dimah 2003; Harbison 2005; Wendt 2009). 이 연구들은 농촌노인들이 전통적인 가족중심적 문화를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행위를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일로 간주할 뿐, 사회문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민자 집단 비교연구에서 다른 이민자 집단에 비해 한국계가 유독 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가족중심적인 문화를 품고 있다(Moon & Benton 2000). 한국에서도 유교에 기반한 가족중심적인 문화가 자녀의 의무와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노인들의 학대행위 인식수준이 낮을 수 있다.

도시노인과 농촌노인간의 비교는 아니지만 이금자와 이현지(2007)의 연구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가족중심적 문화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가 높은 노인일수록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노인은 자녀에 의한 학대행위를 과거 노인의 잘못이나 현재 자녀의 힘든 상황과 결부하여 용인될 수 있을 법한 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와 의식은 대체로 도시보다는 농촌에 더 강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노인에 비해 농촌노인들의 노인학대 인식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도시와 농촌의 가족중심적 문화의 정도 차이와 더불어, 두 지역의 사회참여활동의 폭과 깊이

또한 노인학대 인식의 수준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마을회관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즐길 수도 있으나, 새로운 정보획득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접근이 도시보다 제약된다.

농촌 지역은 낮은 인구밀도로 교통수단 없이는 외부와의 접촉이 힘들며, 교육·미디어·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체계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도시노인은 복지관이나 종교시설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한데 비해, 농촌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마을을 중심으로 한정된다(배진희·김근곤 2011). 제한적인 사회활동은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접하고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또한 노인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면서 농촌 내 규범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킨다(Cuppitt 1997; Dimah & Dimah 2003; Grama 2000; Wendt 2009). 따라서 노인학대의 사회적 이슈화과정을 접하기 힘들며, 가족중심적인 문화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을 수 있다.

III.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학대행위측정항목

본 연구는 2009년 11-12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이 실시한 <노인학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응답노인의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노인보호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300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노인 8,6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로, 6,745명이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사례들은 성과 지역에 따른 층화표집으로 추출되었다(정경희 등 2010: 11-28). 분석에서는 해당 변수들에 결측치를 보인 36사례를 제외한 6,709사례를 이용하였다.

해당 조사의 주요 목적은 '한국형 노인학대 선별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노인학대 선

별도구문항은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를 통해 그 내용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37개 문항에서 30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또한 <노인학대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미국의 VASS(Vulnerability to Abuse Screening Scale)와의 수렴타당도, 그리고 Rosenberg의 자존감척도를 준거로 한 기준관련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상당한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정경희 등 2010: 65-92).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조사는 설문문항에 구체적인 학대행위를 제시하고 노인응답자가 이 행위를 '노인학대'로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응답하도록 이루어졌다. 노인응답자가 노인학대라고 인식하는 문항수가 많을수록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원자료에서 이들 문항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자기방임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조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노인학대 측정문항은 정경희 등(2010: 396-397)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7가지 유형을 4가지-정서적 학대(7문항), 경제적 학대(4문항), 신체적 학대(11문항), 방임(8문항)-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에 유기와 자기방임은 방임에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분류는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방식이다(이금자·이현지 2007). 주어진 자료에서 성적 학대와 유기, 자기방임 등은 각각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적인 학대영역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2. 표본분포

분석을 위해 이용된 변수와 거주 지역별 사례 분포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이 표에서 동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시노인,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은 농촌노인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6,709사례 가운데 도시거주 노인은 72.5%이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등에서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차이가 어느 정도 관찰되는데, 각 영역에서 도시노인의 학대인식 항목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난다.

거주지역외에,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

Table 1. Variables and sample distribution

Variable	Unit: % or Mean(S.D.)		
	Total (n=6,709)	Urban (n=4,861)	Rural (n=1,848)
Perceptions of elder abuse			
psychological abuse(7 items)	6.14(1.42)	6.19(1.37)	5.99 (1.52)
financial abuse(4 items)	3.29(1.25)	3.35(1.21)	3.12 (1.32)
physical abuse(11 items)	10.77(0.80)	10.81(0.69)	10.66 (1.04)
neglect(8 items)	6.61(1.64)	6.72(1.59)	6.31 (1.73)
% Urban	72.5%	---	---
% Female	59.3%	58.3%	61.8%
Age(year)	73.30	73.18	73.61
Education			
none	32.8%	29.0%	42.6%
elementary school	32.1%	31.1%	34.8%
middle school	12.5%	13.6%	9.7%
high school or more	22.6%	26.3%	12.9%
Health condition			
poor	38.4%	36.5%	43.4%
fair	31.0%	31.3%	30.3%
good	30.5%	32.2%	26.2%
Economical condition			
poor	46.3%	44.1%	52.1%
fair	44.2%	45.5%	40.6%
good	9.5%	10.4%	7.3%
% Currently married	57.2%	57.7%	55.8%
% Living with adult children	42.3%	45.0%	35.0%
Frequency of social activities			
none	27.3%	28.4%	24.3%
once or twice a year	7.6%	6.1%	11.6%
once or twice a month	19.8%	20.8%	17.2%
more than once a week	45.3%	44.8%	46.9%

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사회활동 등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전체노인 중 59.3%가 여성노인이며 도시와 농촌노인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3.3세로, 이 역시 도시와 농촌노인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수준에서는 그 차이가 뚜렷한데, 역시 농촌노인의 교육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건강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어르신께서는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가 어떻습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좋음, 보통, 좋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경제적 상황 또한 ‘어르신께서는 동년배의 노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경제 상태가 어떻다고 생

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고, 이 문항에 대한 응답도 좋음, 보통, 좋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황에서도 농촌노인이 도시보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도시노인에 비해 농촌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김영주 2010; 손신영 2006)를 재확인시켜준다.

노인들의 가족관계는 결혼 상태와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고려하였다. 유배우 노인의 비율은 도시노인의 57.7%, 농촌노인의 55.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도시노인의 45.0%, 농촌노인의 35.0%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그간 진행되어온 산업화에 따른 젊은 층의 이촌향도 현상을 반영한다.

사회활동참여는 사고, 오락, 학습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빈도로 측정하였다. 사회활동참여빈도에서 도시노인과 농촌노인간의 뚜렷한 차이는 발견하기 힘들다. 다만,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의 비율은 도시노인에게서 다소 높으며, 일주일에 1회 이상 참여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농촌노인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경험적 분석의 목표는 도시와 농촌노인들의 학대인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노인간의 인식차이를 이원적인 관계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촌의 가변수를 이용한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었을 때의 도시-농촌 노인간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나는지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이원관계에서 평균차 검정 대신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평균차 검정이나 단순회귀분석이나 주어진 모형에서의 결과는 동일하다. 둘째, 분

석목적이 도시-농촌이 갖는 이원적 관계가 다원적 관계에서도 발견되는가 이기 때문에 이원관계와 다원관계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IV. 노인학대 인식수준 분석결과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대하여 4가지 학대 영역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이 표에서 상단의 패널은 거주지만을 이용한 단순회귀분석결과를, 하단의 패널은 거주지와 함께 다른 변수들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를 우선 살펴보면, 학대 유형에 관계없이 도시노인과 농촌노인간의 노인학대 인식수준 차이는 유의미하고, 예상과 같이 도시노인들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학대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서적 영역에서는 거주지, 교육수준, 사회활동참여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에 비해 도시노인들이 노인학대로 인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범위가 더 넓은 의미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사회활동참여빈도가 많을수록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영역의 학대에 대한 인식에서는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사회활동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노인이 농촌노인에 비해 경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다. 도시는 농촌에 비해 삶을 영위하는데 경제적 자산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금전적 제약 등에 대해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신체적 영역의 학대인식에서는 거주지와 사회활동참여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물리적인 폭력행위를 포함하는 신체적 학대는 통념상의

Table 2. Regression coefficient and standard error on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Variable	Psychological abuse			Financial abuse			Physical abuse			Neglect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i>Simple Regression</i>												
Constant	5.994***	0.033		3.122***	0.029		10.656***	0.019		6.303***	0.038	
Area(urban vs. rural)	0.193***	0.309	0.061	0.230***	0.034	0.082	0.157***	0.022	0.087	0.415***	0.045	0.113
<i>Multiple Regression</i>												
Constant	6.116***	0.238		3.506***	0.209		10.760***	0.135		6.313***	0.274	
Urban (vs. rural)	0.217***	0.040	0.069	0.267***	0.035	0.096	0.164***	0.023	0.091	0.388***	0.046	0.106
Female (vs. male)	0.070	0.043	0.003	0.026	0.037	0.010	0.006	0.024	0.004	0.094*	0.049	0.028
Age	-0.003	0.003	-0.015	-0.005**	0.003	-0.027	-0.002	0.002	-0.017	-0.005	0.003	-0.020
Education(vs. none)												
elementary school	-0.112**	0.045	-0.037	-0.159***	0.039	-0.059	0.024	0.025	0.014	-0.076	0.052	-0.022
middle school	-0.062	0.062	-0.014	-0.189***	0.055	-0.050	0.022	0.035	0.009	-0.076	0.072	-0.015
high school or more	-0.148**	0.056	-0.044	-0.180***	0.050	-0.060	0.008	0.032	0.004	0.051	0.065	0.013
Health condition (vs. poor)												
fair	-0.018	0.043	-0.006	-0.059	0.037	-0.022	-0.035	0.024	-0.020	0.047	0.049	0.013
good	-0.051	0.044	-0.017	-0.042	0.039	-0.016	-0.040	0.025	-0.023	0.039	0.051	0.011
Economical condition (vs. poor)												
fair	0.054	0.038	0.019	0.018	0.033	0.007	0.036	0.022	0.022	0.260***	0.044	0.079
good	-0.037	0.064	-0.008	-0.003	0.056	-0.001	-0.072	0.036	-0.026	0.059	0.074	0.010
Marital status												
married vs. not	0.033	0.042	0.012	0.001	0.037	0.000	-0.033	0.024	-0.020	0.072	0.048	0.022
Living with adult children												
yes vs. no	0.023	0.036	0.008	-0.032	0.031	-0.012	-0.010	0.020	-0.006	0.046	0.041	0.014
Social activities (vs. none)												
1-2/year	0.118*	0.072	0.022	0.071	0.063	0.015	0.061	0.041	0.020	0.006	0.082	0.001
1-2/month	0.157***	0.053	0.044	0.059	0.046	0.019	0.039	0.030	0.019	0.096	0.061	0.024
1+/week	0.239***	0.043	0.084	0.221***	0.038	0.088	0.118***	0.024	0.073	0.263***	0.049	0.080

*p<.10, **p<.05, ***p<.01

‘학대’ 개념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다른 학대 유형보다 사람들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노인과 농촌노인간의 차이와 사회활동참여빈도별 차이가 분명하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농촌노인에 비해 도시노인의 인식수준이 높다. 또한 사회활동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다.

방임 영역의 경우, 거주지와 함께 성, 경제상태, 사회활동참여빈도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방임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노인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크다(김정석 2003).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부양을 거부할 경우 받는 타격이 훨씬 클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단순회귀분석에서 보였던 도시노인과 농촌노인간 인식수준의 차이는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난다. 또한 농촌노인에 비해 도시노인의 인식수준이 높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4가지 학대

유형 모두에서 일관되게 발견된다. 한편, 사회활동참여빈도가 높을수록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높다. 그리고 사회활동참여빈도에 따른 노인학대인식수준의 차이는 모든 학대 유형에서 발견된다.

V. 요약 및 제언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는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개념, 유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노인들 스스로가 노인학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을 배경으로 삼고, 도시노인과 농촌노인간의 인식수준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영역과 방임에 있어서, 도시노인에 비해 농촌노인들의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차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사회활동참여빈도 등의 효과가 통제된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농촌에 강하게 남아있는 가족중심적인 문화가 학대행위를 '사적인' 일로 고려하게 하는 반면, 노인학대라는 사회문제와 연결지어 인식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활동참여빈도의 중요성이 농촌노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는 복지관, 종교시설 등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사회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농촌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제한되어 사회활동이 이루어진다. 마을에 한정된 사회활동은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힘들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노인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공유하고 있는 가족중심적인 문화를 유지 혹은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시도함에 있어,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농촌노인들이 학대행위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국내외의 연구들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과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학대에 대한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인식 차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는데 그 연구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과정과 경로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현장관찰과 참여와 같은 질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히는 동시에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2009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 원 자료를 제공해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고보선(2005) 노인학대 위험요인이 학대 심각성 인지 및 학대 경험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 91-121.
- 권중돈(2004)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19.
- 김영주(2010)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경제상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매개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0(1), 265-308.
- 김정석(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차이-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 59-77.
- 김한곤(1998)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84-197.
- 박봉길(2005) 가족갈등을 매개로 한 노인학대의 경험에 대한 노인학대 인식과 가족지원의 인과관계 분석. 노인복지연구 28, 403-428.
- 박옥임(2009) 농촌지역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사회지원체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369-384.
- 배진희·김근곤(2011) 농촌지역 경로당 운영요인이 이용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용만족도와 주관적 효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1, 341-360.
- 배진희·정미순(2007) 노인학대 영향 요인의 성별 비교 연구. 노인복지연구 36, 35-62.
- 손신영(2006)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6(3), 601-615.
- 윤현숙·Lee Hee Yum·권중희·윤지영·박은수·남륜·강성보·박금화(2010). 노인학대 인식과 도움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섯가지 노인학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1), 221-240.

- 이금자(2007) 농촌·도시 노인이 인지하는 노인 학대 및 방입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학연구 2, 1-13.
- 이금자·이현지(2007) 노인의 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209-230.
- 이윤경·김미혜(2008) 노인학대 유형화 및 유형결정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8(4), 1165-1178.
- 이인수·이용환(2000) 노인학대 인식도의 남녀 간 비교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0, 165-184.
- 임병우·주경희·조성은(200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43, 353-380.
- 정경희·이윤경·오영희·손창균·윤지은·이은진·권중돈·김경호(2010)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upitt M(1997) Identifying and addressing the issues of elder abuse: A rural perspective.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8(4), 21-30.
- Dimah KP, Dimah A(2003) Elder abuse and neglect among rural and urban women.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15(1), 75-93.
- Grama JI(2000) Women forgotten: Difficulties faced by rural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Family Law 14, 173-189.
- Harbison J, Coughlan S, Karabanow J, VanderPlaat M(2005) A clash of cultures: Rural values and service delivery to mistreated and neglected older people in Eastern Canada. Practice 17(4), 229-246.
- Lee HY, Eaton CK(2009) Financial abuse in elderly korean immigrants: Mixed analysis of the role of culture on perception and help-seeking inten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2, 463-488.
- Malley-Morrison K, You HS, Mills RB(2000) Young adult attachment styles and perception of elder abuse: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5, 163-184.
- Moon A(2000) Perceptions of elder abuse among various cultural group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American Society on Aging 26(1), 75-80.
- Moon A, Benton D(2000) Tolerance of elder abuse and attitudes toward third-party intervention among African american, Korean american, and White elderly.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8 (3/4), 283-303.
- Wendt S(2009) Constructions of local culture and impacts on domestic violence in an Australian rural community. Journal of Rural Studies 25, 175-184.